

▶ 가족·아동

초등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수용

- 거부에 대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

조 은 정*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전공 석사)

오 윤 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부교수)

본 연구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색으로 미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출산된 자녀양육 역시 그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자녀양육의 환경체계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자녀의 자기확신이나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 정도를 탐색해 봄으로써 부모역할의 효능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부모교육에의 시사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평등문화 정착과 가정의 건강성 향상, 아버지 돌봄노동 참여로 완전한 부모역할 수행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각각에 대한 수용-거부 정도가 일반적 특성에 해당하는 배경변인(성별, 학년, 가족형태, 부모 학력, 모의 직업, 주관적 가족생활만족도, 주관적 경제수준 정도, 주관적 성적수준, 주관적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중소도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380명을 무선 표집하였다. 연구도구는 부·모의 수용-거부 척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 PARQ)는 Rohner(1984)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평가척도로서 박선희(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재구조화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 검증, F 검증,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첫째, 초등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수용-거부 중 하위영역인 수용(온정/사랑)차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왔으며 주관적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을 경우 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영역 중 하위영역인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미분화된 거부는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주관적 가족생활 만족도,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을 경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수용-거부를 살펴보면 하위영역인 수용(온정/사랑)차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을 경우 수용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거부영역 중 하위영역인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미분화된 거부는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으며 주관적 가족생활 만족도가 낮을 경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가족생활의 현상속에 나타나 있는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의 수용-거부에 따른 차이를 통하여 부모 및 학동기 자녀의 일차 양육자들을 위한 기초자료가 산출되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하여 개발 또는 적용시 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